

지역 소식통

부안군, 제13회 부안마실 축제 최종현장보고회 개최

부안군은 28일 제13회 부안마실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 장소인 부안 해돋이마루 지방정원에서 최종 현장 보고회를 열고 막바지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중문 부안군 대표축제 추진위원장과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축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축제의 주제 프로그램인 '최고의 마실을 찾아라'를 비롯한 주요 프로그램의 진행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 무대와 먹거리존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와 교통 대책을 집중 점검하며 축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축제는 오는 5월 2~4일 개최되며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풍성한 즐길 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보건소,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주의 당부

부안군보건소는 지난 23일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확진 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고위험군 등을 중심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람자는 40대 남성으로 간 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다리 부종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뒤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당 균에 오염된 어패류(해삼, 생선회, 홍합 등)를 충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하거나 상처 부위가 오염된 해수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다.

감염 시 사망률은 최대 50%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오한, 발열, 복통, 설사, 구토 등이 있으며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다리 부위에 부종이나 출혈성 수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갯벌에서 즐기는 오감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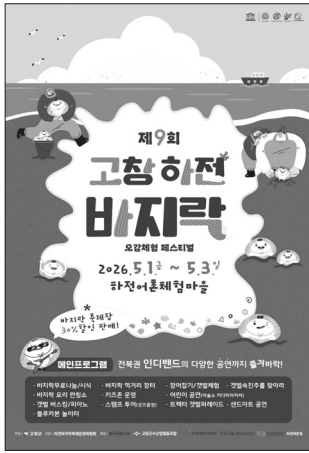
'제9회 하전바지락 오감체험 페스티벌'... 5월1~3일 하전마을서 개최 블루카본 키즈 체험놀이터·갯벌 버스킹 등 이색 체험 프로그램 풍성

고창군이 오는 5월 1~3일 심원면 하전어촌체험마을 일원에서 '제9회 하전바지락 오감체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바지락 생산지인 하전마을의 정체성을 담아, 단순히 '보는 축제'를 넘어 지역민과 관광객이 갯벌을 통해 진정으로 연결되는 '사람 중심'의 축제로 기획됐다.

방문객들은 바지락 무료 나눔과 시식 행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조개 캐기 갯벌 체험 풍천장어 잡기 등 기존 인기 프로그램은 물론, 올해는 트래क्टर 타고 갯벌로 나가 즐기는 '버스킹 공연'과 갯벌 보물찾기 등 갯벌 퍼레이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됐다.

특히 어린이날을 앞두고 '블루카본 키즈 체험 놀이터'가 새롭게 선보인



키즈 체험 놀이터가 새롭게 선보인

다. 어린이 방문객들은 환경 영상 시청, 자전거 전기체험, 잘피식물 심기, 샌드아트 등을 통해 기후 위기와 갯벌의 소중함을 몸소 깨달을 수 있다. 아울러 풍심 데크레이션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 추억의 놀이 프로그램도 무대 곳곳서 펼쳐진다.

또한, MZ세대를 겨냥한 참여형 이벤트도 풍성하다. 바지락을 주제로 창의적인 '숏츠(Shorts)' 영상을 제작해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제작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바라 골든벨', 인디밴드 공연, 마술쇼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와 함께, 마을 어르신을 위한 '효 큰잔치'를 열어 세대 간 화합이라는 축제의 본질을 실천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농산물, 프리미엄 카페 메뉴로 새 판로 연다

고창군-보나비, 협약... 지역 농산물 활용 제품 개발·공동 마케팅

고창군과 (주)보나비(브랜드 아티제)가 지역 농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고창군은 지난 27일 군청에서 (주)보나비와 '고창 농산물 유통·가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주)보나비 오민우 대표이사 및 마케팅 관계자, 지역 가공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고창에서 생산된 팥콩, 단호박, 수박 등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SNS 공동마케팅이 진행된다.



원물 공급과 더불어 프리미엄 베이커리 카페 메뉴로 출시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데 목적이 있다.

(주)보나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베이커리 카페 '아티제' 매장을 50여 개 운영하며 스페셜티 커피와 베이커리, 디저트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고창군은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관리, 공동 마케팅을 지원하고, (주)보나비는 이를 활용한 제품 개발과 생산, 아티제 매장 판매 및 홍보를 담당한다.

이번 협업을 통해 '고창 팥콩 연유 크림 브레드', '고창 단호박크림치즈 식빵', '고창 수박수스' 등 고창 농산물 시즌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립요양병원 운영 기관에 '삼동회' 선정

공개 모집 통해 최종 낙점... 공공의료 서비스 전문성 강화 기대

정읍시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더욱 전문적인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를 정읍시립요양병원 민간 위탁 운영 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정읍시립요양병원은 2006년 5월 처음 문을 연 이후 치매와 노인성 질환 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을 돌보며 지역 사회 중심의 의료 돌봄 기능을 수행해 온 핵심 공공 의료기관이다.

지난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4차례

민간 위탁 선정이 이뤄졌으며 오는 5월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는 운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찾기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수탁 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진행됐다. 시는 외부 전문가 참여한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수행 능력, 의료 인력 확보 능력, 공공 의료 수행 의지,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삼동회를 최종 수탁 기관으로 낙점했다.

이에 따라 시는 28일 삼동회와 협약식을 열고 향후 병원 운영 방향과 역할, 책임에 대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동회는 정읍시립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과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성과 평가를 진행해 병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중앙부처 방문해 주요 현안 건의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위해 현지 전략회의 등 전방위적 대응 나서

고창군이 2027년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28일 세종시에서 '중앙부처 대응 현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 건의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이재순 스포츠산업과장을 만나 사계절 전천후 훈련이 가능한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사업(100억원)'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해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고창군을 호남권 스포츠 메카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어 대선공약으로 반영된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197억원)'을 건의했다.

카누 슬라럼은 2036년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며, 고창군은 부지확보가 완료되어 신속

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경기장 건설 시 대규모 선수단 수용이 필수적인데, 고창군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471실 규모의 고창종합테마파크를 인근에 조성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차상화 재난경감과장을 만나 고수 평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90억원), 대산 산정지구 풍수해생물권 종합정비사업(308억원), 아산 상갑지구 가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26억원)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들러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482억원)의 계속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부처 방문 후 진행된 전략회의에서는 74건(총사업비 4083억원)의 국가예산 사업에 대해 부처별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제4회 웹툰 공모전 작품 모집

6월 22일~30일 접수... 총 상금 1000만원 수여

정읍시가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홍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제4회 정읍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동화농민협회를 비롯해 정읍의 문화, 역사, 인물 등 지역과 관련된 소재를 웹툰으로 재해석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자격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작품 접수는 오는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출품 규격은 완결본 기준 50컷 이상의 JPG 파일(가로 760px, 해상도 300dpi 이상)이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체 원고를 순서대로 병합한 심사용 PDF 파일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접수는 전자우편(loveejr1@korea.kr)으

로 할 수 있다.

시는 주제 적합성, 창의성, 메시지 전달력, 완성도 등을 심사해 8월 중 최종 9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총상금은 1000만원 규모로 대상 1명(500만원), 최우수상 1명(200만원), 우수상 2명(각 100만원), 장려상 5명(각 20만원)에게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은 향후 5년 동안 정읍시 누리소통망(SNS)과 누리집, 소식지 등을 통해 지역을 알리는 홍보 자료로 게재되며 교육 현장에도 보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누리집 공모문을 확인하거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063-539-517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11종 공급

정읍시가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11종을 공급하며 선제적 방역 강화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추진된다.

시는 총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축 방역 약품을 확보했다.

공급 대상은 축산업 허가 등록을 완료한 관내 축산농가다. 시는 가축방역의 중요성을 통해 백신 종류를 확정했

으며, 각 농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백신을 배부한다. 소규모 농가를 우선 지원한 뒤 전체 농가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예방백신은 소 단저·기종저, 소 전염성 비기관염, 야카비네병, 소 설사병(주사제), 송아지 설사병(경구용), 돼지 열병·단독, 돼지 일본뇌염, 돼지 유행성 설사병, 광견병, 뉴캐슬병 등 주요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11종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